

73. 세상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은 설 수 있으세요?

2015.05.11 - 클레어 자매

(클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 일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쇼핑몰에서,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는것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오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어떤것이 매우 분명하게 다가왔어요. 미국과 다른 곳들에서 저희는 다니엘2장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예요: 철로 만든 다리와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가진 다니엘의 신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삼킬 것이예요.

이것은 히틀러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끊임없이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예요: 돈, 상점, 쇼핑, 호기심, 사건들 등등.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간과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사람들은 사전에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저희들의 주변이 이 떠오르는 힘의 발 아래에서 무너질때 자유인으로써 굳건히 설 사람들이예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것이예요.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전화,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등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이 정지되고 서로 고립되면서 갑자기 황폐하고 공허해지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저희의 유일한 현실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만약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저희는 정부당국이 저희를 맹목적으로 불경건한 정부의 속박안으로 이끌기위해 저희에게 제안하는 것 외에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예요.

만약 여러분이 돈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돈에의해 넘어질 것이예요. 만약 여러분이 헛된 오락과 세상의 방식과 의사소통 그리고 호기심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의 그 현실은 뼈아리게 될 것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안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제안받았을때 여러분은 그것들을 다시 돌려받아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 그들의 영혼을 잃을 것이예요. 그들은 수표장을 성경책 옆에 두고 편안함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예요.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저희가 주님 안에 서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고 겁에 질리지 않도록 그 순간들을 위해 저희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세요. 저희는 그 순간들을 위해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해왔고, 저희는 저희 자신의 외부 의사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부

의사소통의 힘을 키웠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저희들의 힘이에요. 나머지 세상이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완전한 혼란에 휘말려있는동안 저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희 배의 방향키를 잡으시고 저희를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에요. 그 바다는 격렬하게 몰아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님께서 저희들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배의 뒤에서 평화롭게 잠을 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초점의 변화에 대해 못마땅해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희의 결혼식날 뿐만아니라 나머지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때 여러분을 계속해서 서 있게 하기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목적으로 이것을 요청하시고 계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와 역점을 주님께 두세요. 그러면 세상이 무너질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안전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